



김성주

최고경영자,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은 한국에서 명성이 높고 인기 있는 패션 회사로서 연간 3억 9,600만 달러의 매출(2012년)을 자랑하는 성주그룹의 설립자이고 최고경영자이나, 자신을 "최고비전책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에너지 재벌의 막내딸로 태어난 김회장은 다른 명문 가정의 남성과 어렵지 않게 결혼하여 전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추진력이 강한 김회장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기를 원했다.

김회장은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에서 신학 학위를 받은 후에 딸을 집 가까이에 두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앰허스트 대학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김회장은 그 후 런던 정경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영국계 캐나다인인 미래의 남편을 만났다.

김회장이 자신이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더 이상 딸의 행동을 참지 못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한 동안 사이가 멀어졌다. 그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맨해튼에 있는 블루밍데일스 백화점에 처음으로 취직을 했고, 마빈 트라우 회장으로 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일을 했다. 그녀는 이 백화점에서 패션 업계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김회장은 약 5년 후에 다시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가 미국에서 추진하던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협상을 통해서 사업 수완을 입증한 그녀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30만 달러를 지원받아 성주그룹을 창업했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투자는 성공적이었다. 김회장이 설립한 회사는 1990년대 초부터 구찌, 입생로랑, 막스앤스펜서와 같은 라벨에 대한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다수의 고급 서양 브랜드들을 아시아에 소개했다. 김회장은 현재 사업의 귀재로 널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아시아의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사업가 50인을 선정하는 포브스 아시아의 2013년 "여성 종합"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김회장은 "기업가의 유전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나 강인한 성격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말했다.

"저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저의 어머니입니다"라고 김회장은 언급했다. "어머니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김회장은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는 동안 매장들을 폐쇄해야만 했을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교훈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성공적인 여성사업가가 된 후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성주재단을 설립했으며, 이 재단은 여성 인재들을 발굴 및 육성하는 데 주력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저의 어머니는 뿌리 깊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라고 김회장은 말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셨고, 저는 이러한 어머니의 철학을 사업의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성주재단은 이러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단체일 뿐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김회장은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남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성 지능이 더 발달되어 있어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김회장은 설명했다.

*이유선*